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장16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오늘 안수집사·권사 선출

본교회 세례교인이면 모두 투표해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자" 뽑도록

본 교회는 오늘 제4부 예배 후(10월1일) 공동의회를 열어 안수집사 20명, 그리고 권사 40명을 투표로 선출한다.

이미 지난 호(제30호: 9월23일자)에 당회에서 배수공천된 안수집사 후보자 40명, 권사 후보자 80명이 주간충현에 소개되었다.

본교회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사람도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충현의 성도는 모두가 참여한다.

교회 헌법에 의하면 안수집사는 무혼한 남자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는 교회의 향존적이다.

그러므로 집사의 자격은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디모데전서 3장8절에서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다.

오늘 선출되는 집사와 권사들이 이 기준에 합당한 자가 피택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오늘 각부별로 일제히 실시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인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오늘 각 부서별로 실시된다.

이미 예고한대로 19개반으로 나뉘어 진행과 심사를 맡게되는데, 이번 암송 부분은 마태복음 5장~7장까지 총 111절이다.

심사위원 명단은 주간충현 제30호(1989년 9월 23일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진대회 특별시단

"오셔서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오시지요 오시지요 주저 말고 오시지요
구원선이 여기라고 생명선이 여기라고
장망성 꿈을 깨고 어서속히 오시지요.

오시지요 오시지요 용감하게 오시지요
헛된욕망 낫은습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하여 보십시오.

들으시오 들으시오 생명말씀 들으시오
인생의 참된 길이 여기에 숨었다고
복되고 기쁜소식 어서속히 들으시오.

들으시오 들으시오 구원말씀 들으시오
죽을자가 사는 길이 여기에 숨었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몸소체험 하십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심자가에 흘리신 보혈 중보의 역활되어
영원한 속죄함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시오 믿으시오 성령역사 믿으시오
완전한 우리마음 감동감화 하시면서
기적의 구원역사 이룩하여 주신다고

믿으시오 믿으시오 내세를 믿으시오
어리석은 인생들은 천국지옥 없다하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 의심여지 없습니까.

박철구(집사·고등부교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도대회사

친애하는 충현가족 여러분!

2천년대를 목전에 두고 세계에로 웅비하려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앙축합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이 시대의 가나안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임을 확인하는 시온성대행진을 함으로써 민족 미래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기도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케 된 것입니다. 충현의 가족들은 눈을 들어 조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슬픈 역사와 변명할 수



우리를 가슴마다 불붙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모두가 참여하되 방관자 없도록"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회되기를"

없는 죄악들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복음화의 길 이외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 운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전도대회에 임하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자세는 모두가 참여하되 아무도 방관자나 허물만 캐는 부끄럽고 게으른 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현이라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우리 중에 아간과 같은 배신자나 위선자가 없어야 할 것이며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역사적인 이 대열에 함께 행군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가정마다 이방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의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민족사가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계기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던 주님의 대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충현교회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전도의 뜨거운 사명의식이 불붙기 시작했으니 이 불길이 자신을 먼저 태우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서울을 불태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10월 한 달 동안 복음증거에 총력을 경주하실 충현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이종훈

"전도상 시상, 전도위로 이관" 교역자·교구위원 간담회서 의견집약

교구위원회(위원장: 우기전장로)가 주관한 교역자, 교구위원 간담회가 지난 9월25일 오후7시40분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카메라초점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를 앞두고 위임목사를 비롯한 전 교역자가 지난 9월27일(수) 오후2시 도곡아파트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노방 및 축호전도를 가져 전도행사의 실천적 모범을 보였다.

△ 교역자, 교구위원 간담회가 지난 9월25일 당회실에서 있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의제들을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도상 시상문제는 전도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교구찬양경연대회 평가에서 교구활성화, 친교에 매우 유익되었고, 앞으로는 심사규정을 사전에 작성하여 지휘자, 반주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을 현실화하되 내년에는 4백만원으로 인상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③ 현재 주간충현에 게재되고 있는 "충현 다락방"은 별 의의가 없어 그대로 게재토록 했으며, ④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에는 전도계획의 실천사항이므로, 직분자들은 3명 인도를 꼭 달성토록 독려하고 태신자, 잃은양 찾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⑤ 또 충현 제자훈련에는 직분자 전원이 꼭 이수토록 홍보하고 ⑥ 교구조정제에 따른 제문제점은 교구조정위에서 계속 검토키로 했으며, ⑦ 교구운영은 구역예배 활성화와 교구배가운동, 그리고 내내에도 분리심방을 계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⑬



본문 / 요 6:30~35

이 세상에는 먹지 않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그만큼 빵 문제는 세인들의 관심사요, 그들의 생애를 거는 대 이슈(issu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빵 문제로 주의와 사상이 갈라지고 빵 문제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빵 문제에만 급급했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빵 문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 표적의 예증

‘떡’은 영어로는 빵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빵은 서양인들의 주식이고 떡은 우리 말로 밥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각기 다른 표현으로 세 번 나옵니다.

(1) 참떡

32절 말씀에 참떡이라 했습니다. 참떡의 반대말은 개떡입니다. 떡 같지 않은 것, 가짜를 말할 때 ‘개’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참떡은 개떡의 반대말이나 진짜떡이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떡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이라 했으니 뒤집어 표현하면 사람의 떡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사람의 떡이고,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 개인에게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 민족, 국가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떡먹은 유대인들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한 것처럼 또 다른 것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평양이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일제시대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보다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일 있다면 그 원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성 부족, 거짓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현상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신앙인데 눈으로 보아야만 되는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이

생명의 떡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2. 악한 요구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광야의 만나와 같은 표적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육십만명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겨우 한 번만 오천명에게 주었지 않았느냐 모세는 하늘에서 내린 떡을 주었는데 당신은 겨우 일용할 양식만 주지 않았는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정확한 표적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논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 이를 수가

이 말은 헬라의 현재분사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인데 그 영향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말입니다. 우둔한 저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아직은 머리 속에 만나를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 다. 믿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눈에 보여지는 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요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egw eimi)는 헬라의 또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는 않고 구경만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의 메시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대항하여 모세를 내세웁니다.

잘못된 환상을 빨리 버리는 것이 메시야되

찾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참떡인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떡은 먹어야 좋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요, 실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한참 먹고, 오래 입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품질의 것이라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열 번 들어도 진력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한 몇가지 교훈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떡은 생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편 자식 아내가 없고, 자식 부귀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없이는 못살다. 예수 믿는 것은 의무의 사항을 훨씬 뛰어넘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째, 떡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음식은 체질에 따라 못먹는 종류의 음식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못잡수실 분이 없습니다.

김씨도, 공산주의자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부자도 다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셋째, 이 떡은 매일 먹어야 할 떡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고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뜻을 압니다. 우리 몸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와 매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분량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초월한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참떡이요, 하나님의 떡입니다.

(3) 생명의 떡

35절에는 또 하나의 떡으로 표현되었는데 생명의 떡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 나오는 이 떡의 형용사는 다르나 같은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본문의 30절이 바로 그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신을 메시야라고 믿고 싶는데 당신이 메시야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방금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없습니다.

3. 환상을 깨치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아주 중대한 발언을 하십니다.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관용어가 아니라 중대발언을 하실 때 강조하시는 강조법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모세에 대한 환상을 왜 모르고 있느냐”하는 답답하신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떨어져 오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원교회 시동중앙교회서 바울남전 제2지회에 감사편지

바울남전도회 제2지회(회장/ 최차용집사)가 지원하고 있는 시동중앙교회 목회자로부터 어려운 환경의 개척교회에 큰 도움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편지가 도착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본다.

바울남전도회 제2지회 회장님, 부회장님 귀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면저 돌립니다. 아울러 사랑의 손길을 저희 교회에 펼쳐주시고 지원대상교회로 선정하여 주신 지원교회 바울남전도회 제2지회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나니 저의 미려한 목회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살림과 그 운영에 매우 커다란 도움과 힘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

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전력하시는 바울남전도회 제2지회 회장님, 부회장, 온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섬기시는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날로 번창하고,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천막으로 세워진 시동중앙교회

“교회학교 예산 현실화하라”

교육위주관, 89년 하반기 교육평가회에서 건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오태희장로)는 지난 9월23일(토) 오후7시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평가회를 가졌다.

24개 부서 부장단 및 지도교역자가 참석한 이날 평가회에서는 먼저 제1부 예배를 오태희장로 사회로 진행, 박승준장로(교육위 서기)의 기도, 김영구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특히 1989년 계절학교(여름) 평가보고서에서 영아부는 출석률이 양호하고 준비물의 준비가 잘 되었으나 아멘홀(본당 지하1층) 안팎에 습기가 많아 답답한 감을 주므로 우는 아기들이 많았고, 아기들 관리가 원만치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유치부는 시내 유치원의 방식이 일정치 않아 인원 동원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예배 분위기와 말씀이 은혜로왔고, 대부분의 교사가 열심히 가르쳤으나 교사들의 공과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유년부는 특별활동(미니올림픽, 공작, 조별 리크레이션)은 모두 참여하여 호응과 반응이 좋았으나, 시간이 짧아 아쉬움을 표시했으며, 초등부는 조별 성경공부가 효과적이었으나 교사의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소년부는 환경의 변화와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최선을 다한 준비, 어린이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교사들의 열성적인 봉사로 어느해보다도 효과적인 교육훈련이었으며, 중등부는 이동하는 야외극이 관객과 출연자들과의 호흡일치로 아주 좋았고, 고등부는 프로그래보다 주제에 집중함이 바람직하고, 교사들의 전적인 참여가 요망된다고 했다.

대학부는 공동체훈련이 잘 이루어졌으나 점수에 집착하여 친교가 원만치 않은 그룹도 있었으며, 청년제2부는 프로그램의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고 했다.

장년제1부는 발레토의·성극대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친교할 수 있어 좋았고, 장년제2부는 반별찬송가 부르기 및 부부찬양 특순이 좋은 점, 장년제3부는 실시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망부는 프로그램에 너무 꽂혀 있어서 노인분들께는 무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이 요망된다고 했다.

직전부는 2박3일동안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78%의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새가장부는 최초로 기도원에서 펼쳐한 관계로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많았으며, 사랑부는 “성경은 제일 좋은 책과 하나님의 편

지”라는 제목으로 그림과 조각을 이용하여 조화있고, 흥미롭게 증거한 예배가 좋았다는 점, 에바다부 아동부는 설교시 수화와 함께 설교하므로 이해가 쉬웠고, 성인부는 강사에

따라 농아인의 이해가 부족하였으므로 강사의 선정을 미리 계획하여 변동이 없도록 준비함이 요망된다고 평가되었다.

이 외의 몇가지 건의사항들이 각 부서별로

제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교회학교 예산 책정을 현실화할 것, 기도원 매점 운영관계는 수양회 기간 중 교육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 시청각교재의 원활한 사용, 교회학교 학생용 운동장 할애, 저학년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별도계획이 있어야 하고, 교사훈련이 시급하고, V·T·R 시설의 완비, 그리고 계절학교 프로그램개발, 성경시험과 찬양대 모집에서의 공정성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충현프리즘

☆ 안수집사·권사 선출에 지대한 관심

지난주 주간충현 제30호에 10월1일 실시할 제6대 안수집사 후보, 제34대 권사 후보자 명단이 칼라사진과 개인 이력이 홍보되자 이를 받아본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이야기거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떤 성도는 자격있는 분들이 많이 공천되었다면서 우리 충현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있는 줄 정말 몰랐다는 표정으로부터 “X X 집사 이름이 없지?” “X X 권사 이름도 있을만한데 왜 빠졌을까?” 등등의 얘기. 또 후보명단

에 오른 집사와 권사들 중에는 ‘내 봉사부서와 학력, 임직년도, 직업이 많이 틀리게 나왔다.’고 교정을 요청해 왔고, 또 어떤 후보는 아예 신상에 대한 명세를 친히 써서 편집국에 들고오는 열심파도 있었다.

이제 심지는 성도들이 뽑게 되겠지만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준비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모두가 기대해 보자.

☆ 제11교구 가족잔치 풍성했다.

제11교구(교구장: 김은호장로, 지도교역자: 김익경목사, 최명자전도사)는 지난 주일(9월24일)

오후2시30분 교회식당 매추라기 홀에서 제11교구 가족잔치가 열렸다.

예상 외의 250여 명의 교구들이 참석한 이날 잔치에는 지난 교구 성가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댓가로 동 교구에 속한 장로들과 바울남전도회 회원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여전도회원들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교구 내의 성도간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와 애씀을 위로하면서 교구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하고,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공동체 신앙생활에 대한 결정을 만끽했다.

부페로 식단이 짜여진 이날 음식은 참석한 제11교구 가족들이 모자람 없이 모두들 기쁘게 먹었다고.

☆ 오랜만의 안수집사 모임

지난 9월25일 오후7시30분 선교관 3층 회의실에서 안수집사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다.

이종윤위임목사와 대화의 시간을 같이한 이날 모임에는 25명의 안수집사들이 참석하여 격의없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고.

자주 모여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어느 안수집사가 살짝 귀뜸.

전도세미나 성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도대회 행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오프닝 행사의 일환인 전도세미나가 지난 9월26일(화) 오전10시(1차), 오후7시(2차) 두 번에 걸쳐 본당에서 있었다.

1,261명의 적분자들이 참석한 전도세미나는 제1부 예배를 감은원장로 사회로 진행, 찬송 277장을 다같이 부른 후 정광호장로(오전), 김재명장로(오후)의 기도, 성경 사도행전 11장 ○절을 봉독한 후 이종윤위임목사가 “잃은 양을 찾자”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행사의 전도세미나 모습

직장전도교육부 해낙은군이 자제했다. 중등부 이상 청년부까지 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각 부별로 실시한 선교옹변대회는 최우슈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으며, 자상직은 24일 주일찬양예배지 거행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최낙은(직장전도교육부) “제목=마보 집사님”
△ 우수상: 최승지(중등부) “제목=민족복음화”

△ 장려상: 이재학(직장전도교육부) “제목=맛물”, 김청호(대학부) “제목=천교와 행함”, 박종성(대학부) “제목=오직 성령”

제2부 순서에는 정은주강도사의 간증 및 기도회 그리고 행사 진행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행사실천계획 설명회가 있었다.

10월6일, 갈릴리홀

여전도회 협의회는 10월 여전도회 특강을

10월6일(금) 오전10시30분 갈릴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강사는 이동주교수(합동신교수)이며, 강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전도사명”이다.

공휴일엔 성경연구원 휴강

성경연구원은 오는 공휴일인 10월 2일, 3일, 9일, 10일에 모든 강의를 휴강한다.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

제1회 성극경연대회 출연팀 소개

예선일자 / 1989년 10월7일 (토) 오후3시
본선일자 / 1989년 10월8일 (주일) 오후3시
장 소 / 갈릴리홀
출연팀(무순) ※ 당일 추첨에 의하여 순번을 결정함

실로암성극단(중등부) 하영수 원작·각색 김광호 연출 스데반의 회개	대학부 톨스토이 원작 김수경 연출 사랑이 깃든곳	대학부 <기쁨> 예수 전도단 원작·각색 정재홍 연출 마 음
마라나타성극단(고등부) 성명희 원작 누구를 위함인가?	직장전도교육부 김보경 원작 김보경 연출 왕 중 왕	호산나(고등부) 김종대 원작 호산나성극단 연출 악마의 최후
청년제1부 최종률 극본 성명현 연출 빈방 있습니다	장년제1부 박찬섭 극본 박찬섭 연출 내가 나를 믿느냐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회

※연락처: 소석관 112호 주간충현 편집국

선교옹변대회 최우수상에 최낙은군



▲ 선교옹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낙은군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인 선교옹변대회가 지난 9월23일 열리는데 최우수상에

에바다부 개교 제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현교회에 에바다부를 개교(1988. 10. 8)한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부족한 저를 에바다부에 부장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에바다부를 이끌어 오면서 다소나마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보람도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새롭고 두미를 몰라 난처한 적도 있었으나 어려운 일이 끝난 후에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도 있었습니다.

개교 당시를 회고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몇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면에서 보면 초창기이므로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수집이 어려웠으며, 운영면에서 보면 계획과 조직운영이 조리게 진행되지 못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교육과 행정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며 모든 교사들의 헌신적 봉사로 인하여 에바다부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교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에바다부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를 지상을

통하여 밝혀두고자 합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송차량 마련 급선무”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대”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5만 청각 장애자에게 복음의 뜻을 두시고 이미 특수부를 창설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요구됩니다.

지난번 제1회 여름성경학교를 개설했을

때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저희 에바다부에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수송차량 문제입니다. 교회나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확도 배우셔서 농아자들과 대화도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들의 뜨거운 기도와 에바다부를 관심있는 눈으로 계속 지켜주실 때에 에바다부는 더욱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세(장로·에바다부 부장) 연합고사위한 기도회 지난주 은혜롭게 마쳐

교회학교 중등부(부장: 엄필성장로)는 지난 주일 12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소석관 507호에서 고입시험을 앞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남전도회가 아담성경공부반을 주관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삶이 풍요롭게 전개되는 과정이 교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9월부터 아담성경공부반을 남전도회협의회가 주관해 되면서 충현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말씀의 비전이 형성될 것을 확신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성경공부반이 이루어가야 할 일을 제시하면서 우리 협의회가 보람된 사명 앞에서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싶다.

현재 아담성경반은 이종운위원장님을 강사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다.

1년을 2학기로 구분하여 수료, 종강의 요식을 갖고 있지만 계속 성경교육이라는 넓은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집사체제의 남전도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강 대상은 남전도회 회원 전원을 중심으로 하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남여 성도가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교육이라는 의미

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 어느 때 와서 청강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2원적 운영이 좋을 듯 하다.

이제 우리 남전도회에 허락된 아담성경공부반이 우리 협의회 연례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며 각 지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거리문제, 시간문제의 부정적 요소도 있겠으나 이것을 극복하고 14교구 산하 28개 지회 남성도들의 빠짐없는 참여의식으로 말씀과 진리의 위대한 연합회 사업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 여순(안수집사·바울전도협의회장)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10월 6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0과 전도는 왜 해야하는가?

성경: 마 28:18-20

요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찬송: 256, 258장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방해요인이 많고 어려움이 쌓여 있어도 꿋꿋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있지 아니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 쉬운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같은 전도의 동기가 있었으니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예수님의 전도명령은 의심이나 의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 명령은 어느 특수한 부류의 직분자나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다.(행 1:8) 그러므로 전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요 3:16) 그는 외아들이었으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선교사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바 되었다.(롬 5:5)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1:13)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니라”(살전 2:

8)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전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한 거룩한 질투를 하신다.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림을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사 42:8)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만유의 주이신 까닭에 그는 우리의 완전한 경배의 대상이 되실 유일한 신이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질투심이 불타 올랐다. 그는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여서 저들을 처리하였다.(왕상 18장)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질투)이 그리스도를 삼켰다(요 2:17).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후 11:2-3).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었다(빌 1:20).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깊은 사랑이 있다면 불신 세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현상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구주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만민 가운데 높임받고 섬김받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함께 생각합시다.

1.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관심사는 무엇이며, 주께서 무엇이 우리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길 원하시는가?
2. 우리의 전도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3. 주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과 거룩한 질투가 우리 심령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동 기도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 깨닫고 감격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번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한 전진대회 기간에 전도에 충성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